

## 중부해경청, 청년 인턴 대상 해양주권 최일선 정책현장 견학

- VTS, 회전익항공대 등 현장 체험으로 해양경찰 업무 이해도 높여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11월 8일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인천회전익항공대 등 최일선 해양치안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경찰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소속 기관에서는 13명의 청년인턴이 6개월간 근무하면서 해양경찰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이날 청년인턴들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김병로 청장과 도시락 미팅을 겸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김병로 청장은 소통 간담회에서 △미래 해양경찰로서의 마음가짐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 등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청년인턴들과 공유했다.

소통 간담회가 끝난 후, 청년인턴들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중부해경청 소속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경인VTS)로 이동하여 항행선박 관제 절차와 관제 장비를 체험했다.

이어 인천회전익항공대를 방문한 청년인턴들은 △해양경찰 회전익 항공대 업무 현황 소개 △헬리콥터 장비 견학 △항공 수색 및 구조 장

비 체험 등을 통해 해양경찰 역할과 임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해양경찰 최일선 정책 현장 견학에 참석한 임정화 청년인턴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직접 해양주권 수호 현장을 방문해서 해양경찰 실무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해양경찰 청년인턴 경험이 미래 인생 설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진설명]

11월 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에서 김병로 청장(가운데)과 청년인턴들이 대화하고 있다

담당부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과 장	총경	최시영 (032-728-8016)
		계 장	경정	이병주 (032-728-8116)
		담 당	경감	이승완 (032-728-8216)
홍보부서	기획운영과 홍보계	보도담당	경위	박세은 (032-728-8212)

